

식문화로 한-아세안 우호관계 지속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음식축제 한마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6일 '2019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전(서울 중구 한식문화관)'과 '2019 한-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서울 서초구 aT센터)'을 개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식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간 문화적·경제적 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전'에는 아세안 8개국의 예선 우승자가 참여하여 실력을 겨룬다.

참가자들은 올해 상반기 각 아세안 국가에서 실시된 예선대회의 우승자

들로, 24일부터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전 및 한식요리 체험, 전통시장 식재료 탐방 등 한국문화 체험을 하게 된다. 한식요리 콘테스트의 주제는 '쌀을 이용한 한식요리'이며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이 맛과 구성, 창의성, 답습 등 6가지 기준에 대해 심사하여 3팀을 수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쌀을 주제로 한 한식문화 전시 '한-아세안 11개 국어로 읽는 쌀'도 30일까지 한식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무료로 개방된다.

또한, 2019 한-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은 전 세계 식품 트렌드로 떠오르는 발효음식을 주제로 한국과 아세안 4개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효음식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발효음식문

화 가치를 발굴하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과 5개국의 주제발표, 이어 발표자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에는 신동화 한국식품산업포럼 회장이 ▲'발효식품의 재조명-현재 그리고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효식품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발효 식품현황을 재조명해보고 거시적 미래방향을 짚어본다. 한국의 주제발표에서는 정혜경 호서대학교 교수가 ▲'장 문화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 음식문화의 정수이자, 한식 맛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음식인 한국 전통 발효 장(醬)의 지혜와 보전에 가야할 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지속가능한 보전과 계승을 위해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아세안 국가 발표는 4개국의 발표

로 구성된다. ▲베트남은 '후(Hue) 지역의 전통 발효식품-현대 요리에서의 가치와 유산, 지속성'을 주제로 ▲태국은 '태국의 토착 발효 콩, 투아나오의 가치와 식품 트렌드'를 주제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발효음식, 템페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발효음식과 식문화의 이해'에 관한 주제로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두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간의 문화적·경제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넘어 공동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식으로 한-아세안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전통 발효 장(醬)과 더불어 아세안의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2일 감사원이 주관하는 '2019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최우수'

국민연금, 감사원장 표창 수상

국민연금공단(감사 이춘구)은 지난 22일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주관하는 '2019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단은 감사원의 예비심사, 현장심사, 전문기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2개 기관에 선정되었고, 최종 발표식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국내 최초로 민자법인에 대한 주주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당 허위 용역비 환수 등 총 57.8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달성하고, 상주용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장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21일 한국감사협회에서 주관한 2019한국감사인대회에서도 청렴윤리부문 및 준법감시부문에서 최우수기관대상을, 개인부문에서는 2019 자랑스러운 감사인상(3급 김병현)을 수상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춘구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으로 공단 내부통제 시스템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예방하고, 민자법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웨스턴 유니온 송금받기' 출시

NH농협은행은 해외에서 웨스턴 유니온을 거쳐 송금하면 NH스마트뱅킹 등 비대면채널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웨스턴유니온 송금받기'를 출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비대면 웨스턴유니온 송금받기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했던 해외송금을 영업점 방문 없이 농협은행의 비대면채널인 NH스마트뱅킹, 농협 인터넷뱅킹에서 본인의 원화입출금계좌로 자동환전되어 원화로 입금 가능하며, 올원뱅크에서도 25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1건당 최대 7천달러까지 수령가능하며,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매월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은행영업일 9시부터 17시 30분으로 향후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별도의 이용 수수료가 없으며, 특히 2020년 6월말까지 비대면 웨스턴유니온 송금받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우대환율 50%를 적용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수여식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22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오리움에서 열린 '2019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스마트농업 시범 교육장 확대

농진청, 전체 70곳... 도내서는 익산·정읍·부안에 설치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까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시범) 교육장(이하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전체 7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인 스마트 농업 교육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원에 작물의 시험 재배를 통해 최적의 재배환경과 생육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농업농지원체계 구축과 기술보급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 남원을 비롯해 경기 화성, 충남 홍성 등 14개 지역에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김제, 진안, 장수 등 28곳에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익산과 정읍, 부안에도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기술보급으로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마련된 지역에서는 스마트팜 농가와 스마트팜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성된 스마트농업 교육장 1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 내 스마트팜 전체 농가는 30.3% 증가했고, 스마트팜 면적은 1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5~26일 양일간 올해 조성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진안군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농업 교육장에서 현장평가를 연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인천서 첫 'H 수소충전소' 개소

하루 60대 이상 완충 가능·연중 무휴로 운영

현대자동차가 남동구에 위치한 SK행복충전 노면 충전소(LPG충전소, 참능대로 468번길 1)에 'H 수소충전소'의 문을 연다.

현대자동차가 SK가스와 함께 진행한 인천시의 첫 번째 수소충전소인 'H인천 수소충전소'의 설비 구축을 완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H 수소충전소'는 지난해부터 현대차가 수소 충전소 구축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도심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체 구축하고 있는 충전소로, 이는 현대차와 에너지 업체가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수소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H인천 수소충전소'는 당초 현대차가 자체 구축 예정이었던 도심 4개소(부산, 국회, 인천, 김동(예정))와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여주, 안성, 함안, 하남) 등 총 8기의 수소충전소 중 7번째로 구축된 충전소이며, 내년 초에 H강동 수소충전

소가 마지막으로 개소한다. 'H 인천 수소충전소'는 인천에 위치한 첫 수소충전소로 총 216.86㎡의 면적에 일 6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어 인천 및 수도권권 서부권역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와 SK가스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H인천 수소충전소'는 '에코스테이션(Eco Station)' 이름으로 기존 LPG 충전 기능에 추가로 수소 충전까지 가능한 친환경 충전소로 변화를 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LPG 충전소 운영 경험을 보유한 SK가스와의 협업으로 수소충전소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수소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복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